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A Study on Intersectional Power Relations Projected on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Series

김태룡 (Taeryong Kim)**

안승범 (Soongbeum Ah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ower relationships surrounding Christian identity by analyzing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movies and drama series made in Korea from an intersectional point of view. This is based on the need to closely examine the realistic evaluation of Christians and Korean churches from the general public opin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Raymond Williams' concept of 'structure of feelings', it was premised that culture and art reflect the emotions and values of contemporary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ity', which explains that the composition of social power is formed on the overlap of various identity factors, was used as the main analysis method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8 characters who appeared in 7 dramas or movies released through Netflix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content appeared to overlap with issue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class, gender, and generation gap. And they were portrayed as causing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in various ways in social relationships. This is judged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on Christianity.

Key words: Netflix, Korean churches, Christian Character, Intersectionality, Christian cultural content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4)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contentist@khu.ac.kr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instory@khu.ac.kr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심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차적으로 이들 작품은 한국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해명하는 과정은 그들의 말과 행위, 상징적 위치에 ‘특권/차별’의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기입되어 있다는 가설에 따른다.

오늘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개념은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판적 성찰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용어가 되고 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정체성의 요소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운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부당한 관습을 타파하고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은 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명 인사의 도덕 문제, 사회복지 제도나 소수자 관련 정책 문제, 젠더 이슈 관련 문제를 논할 때 차용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종일, 2019: 47-52).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을 광범위하고 민첩하게 가시화시키는 계기 중에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들이 있다.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애니메이션, 글로벌 OTT 드라마 시리즈에서 페미니즘, 블랙워싱, 동성애 코드 등이 논란이 된 사례는 매우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 디즈니가 제작한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를 들 수 있겠다(SBS, 2023).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Francis Fukuyama, 2018/2020: 193).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호전적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정치 담론으로 도입되었다(Asad Haider, 2018/2021: 27). 김창남은 정체성 정치를 젠더, 인종, 세대, 종교, 지역,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정체성 요소를 공유하는 집단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운동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 정치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중요한 사회적 의제였던 이념 정치의 자리를 대체하였다고 말한다(김창남, 2021: 308). 김지연은 카림의 논의를 빌려 2020년대 한국사회 내 정체성 정치의 현황에 대해 논한다. 그는 우리 시대의 조류를 ‘3세대 정체성’으로 명명하며 국가, 성별, 인종, 계급, 취향 등의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혼종적이고 고유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핵심으로 여긴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주장한다(김지연, 2022: 11-12). 이렇듯 정체성 정치 개념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을 판단할 때 요긴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의 일부 진영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의 전 사회적 확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 선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정체성 정치를 이념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마르크스 진영의 국가 분열 및 기독교 문화 파괴 전술로 간주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복음기도신문, 2023 ; 코람데오닷컴, 2023). 더 나아가 ‘마귀의 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박동일, 2020: 29-33). 이러한 입장은 공통적으로 정체성 정치의 사회적 발현과 기독교 세계관의 확장이 양립 불가하다는 시선을 드러낸다. 물론 한국 기독교계 내부에는 정체성 정치의 활성화를 가치중립적으로 파악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정체성 정치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에 기초해 양자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견해도 존재한다(문화선교연구원, 2023).

포괄적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는 정체성 정치 담론을 비판적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비기독교인이 주류인 대중 사회는, 기독교계가 정체성 정치의 실천적 흐름을 막아서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후자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2년 11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중 ‘한국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비개신교인의 62.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앤조이, 2023).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2022년 4월 국민일보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각 종교의 상징적 이미지 단어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22). 2023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70.8%를 기록하였다(한국기독교공보, 2023a). 이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대중의 인식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정체성 정치의 거시적 흐름에 차별·혐오·배타적 태도로 대항하는 세력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평등·정의·공존 등의 가치를 저해시키거나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는 존재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태도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진리 수호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강경한 입장, 정체성 정치와 기독교 세계관의 타협을 요청하는 중재적인 입장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한편 교회의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과 이웃 사랑 부재가 초래한 결과로 간주하는 성찰적 입장도 감지된다. 이 중 어떤 노선이 한국교회의 주된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절충되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에 앞서 더 구체적으로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거시적인 경향성을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설문을 통한 인식 조사는 문항에 제시된 ‘키워드’를 개념적 울타리로 하며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보완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은 드라마 시리즈 속 서사 정보와 이미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국내외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조명받은 작품들 안에는 맥락적으로 발현되는 보편적 ‘문화적 요소’들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지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이 수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로부터 정체성 이슈를 찾아볼 것이다. 먼저 기독교인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 내에서 구조화된 권력이 작동하는 지점을 읽어내고, 권력의 방향성을 진단할 것이다. 서사 정보 속 기독교인의 행태가 사실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회적인 보편 가치와 어떻게 길항하는지, 정체성 정치의 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짐작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정체성 정치와 연관된 사회적 의제를 옹고 그릇의 관점에서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단지 동시대 사회관계망 안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그리고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기초한다.

II. 한국교회를 향한 동시대의 감정구조와 방법론으로서 ‘상호교차성’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사안에 따라 긴 시간 지속되어 왔다. 교계와 학계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중의 시선을 객관화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글로벌 문화콘텐츠에 반영된 반기독교 정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예를 들면,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목사는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을 거론하며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국 개신교 코드가 클리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 작품을 통해 기독교인이 비윤리적인 이중성을 가진다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의 글은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노컷뉴스, 2023).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는 <오징어 게임>에서 주요 인물의 아버지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일삼는 목회자로 설정된 부분에 주목한다. 이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

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이 서사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대중적인 문화콘텐츠의 내용이 보내는 메시지,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겹쳐히 수용하는 데서부터 사태 전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한국기독교공보, 2023b). 또한 성결대 운영훈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기독교 내부의 문제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진단한 바 있다(데일리굿뉴스, 2023).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성경적 삶의 실천,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기독교인 이미지의 개선, 기독교 대중예술가 양성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다(강진구, 2023: 72). 담론장에 제출된 기독교인의 시선을 종합해보면, 한국교회가 현실을 자각하고 자성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반복 재생산하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뉴스파워, 2021). 때로는 반기독교적 작품이 유포하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비판하며(크리스천투데이, 2022) 적극적인 응전의 자세를 내보이기도 한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반기독교 작품으로 규정하며 제작진의 사과와 영상삭제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이미지를 생산하는 문화콘텐츠들, 혹은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 앞서 제시한 대타적 입장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징후적으로 읽고자 한다.

일찍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을 경유해 동시대 특정 사회의 문화적 구성물들의 함의를 진단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한 사회의 감정구조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사고방식, 생활 형태, 삶에 대한 특수한 감각 등을 통해 감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장소·시간·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형성되며 공동체의 심층에서 공유되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을 갖는다(Raymond Williams, 1961/2021: 72-87). 이는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신념과는 달리 실제로 활발히 체험되는 ‘감정’이나 ‘정서’에 더 가까운 것이다(Raymond Williams, 1977/2013: 268-269).

감정구조 개념에 착안해서 보면, 한국사회 내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태도는 대중의 의식과 경험에 기반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으로 체화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주목할 것은, 감정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가 세대를 거쳐 학습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감정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Raymond Williams, 1961/2021: 81). 과거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문화가 누리던 사회적 위상과 현재의 낙차가 바로 감정구조 변화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감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계기들을 포착하고, 그 양상을 징후적으로 파악해보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를 하나의 문화적 가설로 내세우면서 예술, 문학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시대를 공명시킨 예술, 문학이라면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 사회의 내용을 적실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Raymond Williams, 1977/2013: 270-271).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접목하면, 폭넓은 지지를 받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수용체험을 분석하는 것은 동시대의 감정구조와 그 역동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안송범, 2022: 95).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 특히 영상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대의 감정구조를 읽으려는 시도를 수행한 바 있다(Podalsky, L, 2003 ; 강유정, 2015; Robe, C, 2017 ; 김소은, 2017). 이는 현대에도 감정구조의 개념이 문화연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기독교(인) 이미지를 통해 기독교를 둘러싼 동시대인의 감정구조를 읽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넷플릭스는 미국의 글로벌 OTT 기업으로 전 세계 OTT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체의 변화, 콘텐츠 시장의 확장,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활성화로 인하여 TV나 극장(영화관)으로 대표되는 레저시 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자리잡았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는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이용자 수는 1,137만 명으로 2위 기업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매년 84%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의 잇따른 흥행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국내외적으로 더 확대될 것(지인혜, 2023: 22-32)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시대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대중의 문화 취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연구 경향으로도 확인된다. 각종 학술 DB 사이트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대한 학술적 담론장이 이미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밝힌 대로, 이 글은 넷플릭스에서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들 중 가장 주목받은 작품들 상당수에서 기독교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데 주목한다. 분석 대상 선정의 기준은 2020년 이후 개봉(방영)되어 넷플릭스를 통해 높은 관심도를 보인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이다. 관심도의 측정은 주간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넷플릭스의 차트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비영어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 동시에 영어·비영어권 전체 차트에서는 5위 이상에 랭크된 바 있는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그 중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닌 캐릭터가 등장하여 일정한 서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징어 게임>(2021), <지옥>(20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더 글로리>(2022), <수리남>(2022), <길복순>(2023), <퀸메이커>(2023)이다.

본 연구가 캐릭터 분석을 위해 차용할 방법론적 도구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이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에 따르면 상호교차성이란 개념은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호교차성은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 자신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사건들과 조건들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도 상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많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과 권력의 구성은 인종, 젠더, 계급 모두 사회를 나누는 하나의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축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상호교차성은 분석 도구로서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22).”

계급, 젠더, 인종, 국가, 지역, 민족, 섹슈얼리티, 비/장애, 시민권, 학력 등은 한 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축으로 기능하며 특권과 차별을 낳는 계기들로 작동할 수 있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25).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며, 상호교차적인 권력 체계를 형성한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56).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순수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 둘 이상의 차별이 상호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특권/차별을 낳는 요소들이 서로 얽혀 다차원적인 특권과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일한 정체성으로 대상을 파악하거나, 개입된 특권/차별의 요소를 단순화하여 인식한다면 개인, 집단, 사회의 복잡한 체계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기존의 정체성 정치가 특정 정체성을 선택/배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체성 집단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Francis Fukuyama, 2018/2020: 195-20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교차와 접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앞서 나열한 다양한 정체성의 조건들이 사회적 특권 혹은 차별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종교로서 ‘기독교’ 역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정한 권력관계를 파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종교적 관계 안에서, 곧 단일 조건에 의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보다 다른 조건들과 연결되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한 상호교차적 갈등은 형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억압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상호교차성으로 읽는다는 건,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점에서 권력관계가 어떻게 엮이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주안점은, 넷플릭스 콘텐츠 속 기독교인 캐릭터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다중다기한 방식으로 억압을 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주로 특권을 누리며 차별을 발생시키는 존재인 셈이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보면, 해당 캐릭터가 지닌 권력이 단순히 ‘종교’를 축으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젠더, 세대, 계급 등의 축이 서로 얽혀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킨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그래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 캐릭터가 지닌 권력이 종교 외에 어떠한 축과의 결합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의 양상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3장에서는 작품 속 기독교인 이미지에 내재된 상호교차적 축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경유할 것이다. 첫째, 극 중 기독교인 캐릭터가 행사하는 또는 추구하는 권력은 무엇인가? 둘째, 권력이 작동하는 또는 추구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셋째, 피권력자는 누구이며 권력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넷째, 피권력자는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겪고 있거나 겪게 되는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미디어, 그리고 대중이 기독교를 어떠한 정체성 이슈와 연결하고 있는지, 한국 기독교를 어떠한 유형의 권력과 병치시키고 있는지, 기독교인이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파생시킨다고 보고 있는지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III. 기독교인 이미지에 접합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분석

1. 계급적 특권이 야기하는 차별과 억압

넷플릭스 콘텐츠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주로 계급적 특권과 젠더·세대적 특권을 축으로 형성된다. 한 사회에서 계급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따른다. 해당 인물 혹은 집단이 지닌 경제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눌 것이며 특히 상위 계급에 속한 기독교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계급적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인물 중 다수는 목회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권위를 기반으로 부의 축적 및 사회적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해당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계급적 특권을 행사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권력관계 분석

작품명	<수리남>	<지옥>	<퀸메이커>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사진					
인물명	전요환	김정철	나진국	이길성	이사라
권력 발생 심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계급
작동방식	기만, 폭력, 환각	기만, 폭력, 공포	야합	기만, 부정축재	폭력, 환각
피권력자	강인구, 수리남 성도 들, 수리남 국민	민혜진, 피고지인, 한국 국민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	문동은, 제자들
차별/억압	환각에 의한 복종, 주체성 상실	사회적 배제, 인격 말살, 주권 상실	참정권 상실	가스라이팅, 착취	인격 말살, 주체성 상실, 환각에 의한 복종

종교인으로서 권위가 계급적 특권과 결합한 대표 사례는 <수리남>의 전요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요환은 표면적으로는 수리남에서 목회하는 성직자이지만, 사실은 마약왕으로 군림하는 인물이다. 그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특권을 행사한다. 그는 타인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집도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며 기도회 등의 종교적 행위를 수행한다. ‘코카인은 주님의 은총’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사업을 성역화하고 자신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을 ‘사탄’으로 지칭하며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위치시킨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수리남 대통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후 그는 수리남 대통령의 비호 아래 코카인 유통권을 독점한 후 법적·제도적 규율 바깥에서 자유롭게 확보한다. 겉으로는 공익사업을 하는 등 모범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코카인 경작지를 군대로부터 보호받는 등의 초법적 특권을 누린다.

전요환은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기만이다. 그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는 4화 중 핵심인물인 강인구와 코카인 밭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불법적 사업을 신성한 ‘사역’으로 둔갑시킨 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는 물리적인 폭력 행사다. 그는 사업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직접

적인 경쟁상대인 첩진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세력 역시 무력으로 통제한다. 동업자 혹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리남 대통령과 강인구, 구상만을 겁박하는 장면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4화에 등장하는 간부급 여신도가 강인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거칠게 훈육하는 장면은, 사업적 성공을 위해 그의 모든 관계망이 수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셋째는 환각이다. 이때의 환각은 극단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사적 성격을 갖는다. 전요환은 수백 명에 달하는 자신의 성도들을 왜곡된 교리와 마약으로 통제한다. 왜곡된 교리와 마약은 사실상 유비관계에 놓이는데, 후자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즉물적인 비유일 수 있다. 2화에서 보여지는 여신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유통 반경을 확대하려는 시도, 남신도들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사병화하는 모습 등도 신적 권위를 통해 상대를 가스라이팅한 후, 일종의 종교적 환각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태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수리남>은 낯선 중남미 국가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여주면서, 지역과 국가, 계급과 종교가 착종된 미묘한 권력관계를 전시한다. 전요환에 의해 폭력적 억압을 경험하는 대상은 넓게는 마약을 접하게 되는 자들과 수리남 거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대상은 수리남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전요환이 제공하는 마약으로 인하여 극적 종교 체험과 마약 효과로서 환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종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한 명의 독립적 인격으로서 주체성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설정된 것은 다소 비약이지만, 이는 한국교회 내 ‘목회자-성도’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옥>의 김정철은 극 중에서 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새진리회’의 2대 의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원래 그는 목사로서 ‘미래종교’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새진리회를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진리회의 초대 의장 정진수와 결탁해 2대 의장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진리회의 비밀을 밝히려는 민혜진 변호사를 유인하여 살해를 시도한다. 3화에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의 ‘강력한 의장’이 되겠다는 언급을 통해 계급적 권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새진리회 의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철을 정통 기독교인으로 간주하긴 어렵다. 그러나 ‘미래종교’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그는 기독교와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세력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생각나게 한다. 특히 비기독교인의 포괄적 인식 속에서 ‘문제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면모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장이 된 이후 그는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마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며 권위적 독재자의 면모를 내보인다. 새진리회의 건물 벽면의 그림이 북한의 선전선동부의 화풍으로 묘사된 것도 그러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김정철이 이끄는 새진리

회는 천사에 의해 죽음을 고지받은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후, 그들의 죽음을 방송으로 내보내며 대사회적 장악력을 키운다. 그 과정에서 대중 여론을 조작하는 인플루언서(화살촉)와 모종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김정철은 정보에 대한 해석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틀어쥔 채, ‘신의 결정-처벌’ 과정을 주관하며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미지를 실리적으로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다. 이는 대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일부 한국교회가 맹목적인 믿음을 근거로 배타적 차별과 폭력을 행사했던 순간들을 과장되게 보여준다. 김정철의 신적 권력은 정부의 기능과 공권력까지도 통제범위 안에 둔다는 점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기독교(유사 이단)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김정철의 상징적 위치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의 이미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N스크린 시대, 정보를 독점하고, 해석 권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계급 우위를 점하는 권력 집단의 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확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이는 향후 출현 가능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의 양상을 짐작시킨다.

김정철의 폭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대표적 캐릭터는 민혜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민혜진은 김정철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준하게 된다. 이차적인 피해 당사자는 천사의 고지를 받은 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모욕적인 종교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김정철에 의해 ‘신의 단죄’로 해석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물리적 사망 이전에 인격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는다. 일반 시민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배경에서 최종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자가 된다. 김정철이 이끄는 새진리회가 국정을 좌우하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침해받는다.

<퀸 메이커>에 등장하는 나진국 목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종교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 예배당의 크기, ‘총회장님’이라는 호칭, 지교회들을 아우를 때 성도가 50만 명에 이른다는 정보를 취합하면, 그는 대형교회 목사이자 교계의 거물로 추측된다. 그는 예배 중 설교를 통해 정치적 연설을 반복하며, 8화에서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출마 선언의 아젠다는 ‘서울을 평화와 영생의 도시로 바로 세울 것’이라는 포부로 요약된다. 이는 그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선출 권력이 되려는 인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여기에는 정치적 언어, 정치적 행동을 종교 행위로 포장해 세력을 과시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의 모습이 스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계급적 욕망은 경쟁 후보인 백재민의 선거 전략가가 제안한 단일화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초반에는 응당한 보은을 제시한 백후보 측의 제안을 ‘나는 맘몬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로 거절하나, 상대방이 ‘아시아 최대의 비전센터 건축’을 제시하자 ‘할렐루야’라는

말로 응답한다. 이후 단일화 수락 연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일화를 선언, 정치권과의 야합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욕망을 우선 충족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나진국에 의해 ‘어린양’으로 불리는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비친다. 정치적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진국의 설교에 열정적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종교적 사명감으로 충만하다. 백재민이 단일화 이후 얻은 지지율 상승의 결과는 성도들의 일체화된 종교적 열정의 힘을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환각과 공포를 통해 권력을 휘둘렀던 전요환과 김정철과는 다르게, 나진국의 경우 물리적 강압이 없다는 것이다. 성도들을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수동적 존재로 그린다는 점은 지나친 설정이지만, 현실에서 보고되고 있는 종교적 가스라이팅 사례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

<더 글로리>의 경우 두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이사라의 아버지인 이길성 목사이다. 이길성 목사는 대형교회의 목사로 등장한다. 그의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드나드는 교회인 것으로 보인다. 5화 중에는 이사라가 문동은을 협박할 때 ‘우리 교회에 경찰 간부가 많다’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길성 목사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보호막을 가진 것처럼 비친다. 15화에서는 그가 약 20여 년에 걸쳐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그가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온 권력 추구형 인물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딸인 이사라와의 관계를 통해 그가 기만적인 방식으로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음이 고발되는 장면이 있다. 12화에서 이길성은 마약에 빠진 딸을 보호센터에 보내자는 아내의 말에 ‘목사 딸년 마약한다고 광고를 하라’는 핀잔을 준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부모로서의 책임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부인인 이사라의 모에게도 나타나는데, 3화에는 마약에 취해 잠들어있는 딸을 혼육하기보다는 다음 날에 있을 특별전을 걱정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그가 이길성과 마찬가지로 교회 사모와 어머니로서의 덕목보다는 당장의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길성과 그의 부인은 목회자 부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행실은 외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은폐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확보해온 사회적 실익에 집착한다. 교회 성도들은 억압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 속에 비판의 기능, 자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묘사된다. 이길성이 탈세로 축적한 돈이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시선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사라는 <더 글로리>의 주요 악역 5인 중 한 명으로 등장하며 주인공인 문동은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인물이다. 가해자 5인 중 3인이 경제적 상위 계급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사라도 그중 한 명이다. 이사라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

식은 자신과 상대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힘의 우열로 인지시키며 진행된다. 1화에서 이사라는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문동은을 괴롭히며 “너 때문에 달방이라는 말 처음 들었다”라는 말로 모욕감을 준다. 또한 15화에서는 같은 그룹에 속했지만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를 “문동은이 아니었다면 (괴롭힘의 대상은) 너였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특기할 것은, 그가 악행을 지속하는 중에도 타인의 시선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8화에서 성인이 되어 찾아온 문동은에게 “나는 너에게 한 짓을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도외시한 채, 도피적이고 가시적인 영성에 매몰된 일부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계급적 특권의식뿐만 아니라 왜곡된 선민의식이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2화에서는 그의 제자 또는 대리작가로 보이는 여러 화가들이 마약을 투여받으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저거 맞으면 더 잘 그리냐”는 친구의 질문에 이사라는 “저거 맞으면 내 말을 잘 듣지”라고 응답한다. 이는 최근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슈로 조명되었던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의 일면을 환기시킨다. 또한 <수리남>의 전요환의 사례처럼 ‘기독교인-마약’ 사이의 연상관계를 반복하는 부분은 기독교를 대상으로 여러 문인, 학자, 사상가들이 반복했던 표현인 ‘종교는 인민의 아편’(Karl Marx, 1927/2011: 8)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부 기독교인에게서 발견되는 초월적이고 도피적인 영성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시절 이사라는 문동은과의 권력적 착취 관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연장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계급에 있어서의 우위를 활용해 약자를 고립시키고 인격을 말살하는 태도를 보인다. 화실의 제자들에게 행하는 폭력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노동력 착취로 연결되는 바, 그 모든 과정에는 ‘환각’으로 묘사된 기독교인의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이 결부되어 있다.

종합하면, <더 글로리>의 이사라 일가의 폭력적 행태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 가족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가족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도 존재한다. 편향된 시선이 존재하지만, 종교(기독교)와 계급이 교차하는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젠더적·세대적 특권이 야기하는 차별과 억압

넷플릭스 콘텐츠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젠더적 특권과 세대적 특권이 결합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폭압적인 행태를 내보이는 인물의 상당수는 중년 남성인데,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을 실천한다. 오늘날 스크린에서 상당 부분 사라진 전통적 가부장 모습을 한 중년 남성이 기독교인 이미지로 귀환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들의 성격에 따라 여성 또는 젊은 세대는 다른 유형의 억압을 받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표 2. 젠더·세대적 특권을 행사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권력관계 분석

작품명	<오징어 게임>	<길복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			
인물명	지영 부(사진은 지영)	길복순 부	신부 부, 신랑 조부
권력유형	젠더, 세대	젠더, 세대, 성적 지향	젠더, 세대, 성적 지향
작동방식	가부장, 폭력, 성폭력	가부장, 폭력	가부장, 혼인 및 파혼 강요
피권력자	아내, 딸 지영	딸 길복순	신부, 신랑
차별/억압	주체성 상실, 성적 자기결정권 상실, 사회부적응	주체성 상실, 사회부적응	성 정체성 상실, 종교 자유 상실, 주체성 상실

지영 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인 ‘지영’의 아버지다. 작중 지영 부는 직접 출현하지 않지만, 대사와 일부 이미지를 통해 뚜렷한 서사 정보를 갖는다. 지영은 참가번호 240번으로 생사를 건 게임에 참여한다. 그의 개인사는 6화 중 구슬치기 게임을 앞두고 나는 새벽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다.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지영은 가정사의 아픔을 새벽에게 털어놓는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는 성폭력을 자행한 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는 인물이었다. 이후 지영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이에 분개한 지영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다. 지영은 “성(姓)이 무엇이나”는 새벽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며 부성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다.

지영 부가 아내와 딸에게 젠더·세대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성폭력이 포함된 가정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여성들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지영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직접 살해되고, 지영은 살인범이 된 후, 결국 게임 과정에 내몰려 죽음

에 이르게 된다. 지영은 어린 나이에 친부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셈인데, 그때부터 지영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방기한다. 그가 데스 게임에 입한 것은 삶과 죽음이 무의미한 상태의 절망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목회자 이면서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였고 상습 (성)폭행범인 지영의 아버지는 모순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독교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의 폭력적 이미지는 젠더, 계급, 종교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길복순>은 길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길복순을 중심으로 플롯이 진행된다. 그는 상식선에서 양립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는 캐릭터이다. 그런데 영화 중반 그의 과거사가 밝혀지는 순간, 그의 현재를 만든 복합적인 계기들이 짐작된다. 사진 속 정보를 통해 보건대, 그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기독교인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길복순의 손을 강압적으로 쥐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를 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이 장면까지는 기독교인 가장의 모습으로 다소 불편하지만 헤아려 볼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담배를 씹어 먹으라는 처벌을 딸에게 내리는 모습이나 무차별적 폭력을 당한 복순의 얼굴은 부모의 자격, 경찰의 본분을 논하기 전에 그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체벌을 가장의 권위를 앞세워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체벌 전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 기도는 딸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자신에게, 또 딸에게 신의 합당한 처벌로 치환하는 의식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이후 길복순에게 두드러지는 모성애와 범망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등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와 관련된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 반발심과 모종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길복순 아버지의 길복순에 대한 폭력은 종교와 성차에 더해 세대(연령) 간의 힘의 차이가 결합되어 가시화된다. 결국 길복순은 <오징어 게임>의 지영과 마찬가지로 친부를 직접 살해하는 방식으로 억압의 고리를 끊는다. <길복순>은 길복순의 선택과 행위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면서 반영웅으로서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는 킬러라는 그의 직업이 불법성과 반사회성을 표면화하면서도 딸과의 연대를 통한 주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연관된다. 그는 레즈비언 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젠더 문제를 고발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까지 끌어안는다. 이는 <길복순>이 장르적 성격이 강한 오락영화이지만, 기독교, 젠더, 성적 지향, 세대 문제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중층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서사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2화 ‘흘러내린 웨딩드레스’는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된 신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신부와 신랑은 각자의 부와 조부 간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사랑이 부재한 혼인을 하게 된다. 신랑의 조부는 교회 장로로서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하는 신부를 손주며느리로

삼기를 원한다. 하지만 결혼식 중 드레스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신부 등에 있던 관세음보살 문신이 드러나며 신랑의 조부는 충격을 받게 된다. 신부의 종교가 자신과 다름을 인지한 신랑의 조부는 결혼을 파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신부의 부 역시 극 중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맥락상 기독교인으로 파악된다. 신부의 부는 신랑이 재벌 집안의 자손인 것을 알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결혼식 이후 신랑 측에서 파혼을 요청하자 결혼식을 주관한 신랑 측에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딸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듯 2화의 에피소드는 종교적 성향과 경제적 이해관계, 가부장적 규제력이 만나는 자리에서 결혼이 이해 당사자에게 어떤 폭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임을 아버지에게 통보하는 신부의 모습은 기독교인(아버지)의 ‘종교 강요’ 문제의 일면을 전경화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인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환기시킨다. 이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중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교인들의 삶’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와도 연결된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54). 이후 장면에서 신부는 아버지에게 종교적 정체성과 함께 숨겨왔던 성 정체성을 밝힌다. 자신과 애정관계에 있는 동성의 연인을 소개하며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공표한 것이다. 이때 아버지는 혼란과 분노에 사로잡혀 졸도하고 두 연인은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들은 우영우의 시선을 통해 지지를 받는데, 이 장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수용자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담아낸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는 기독교인의 이미지 속에 착종된 대중의 부정적 편견, 특히 이성애 중심적 신앙관이 성소수자에게 행할 수 있는 차별의 강도까지 서사화하고 있다.



그림 1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되는 권력의 작동방식과 억압의 생산 구조

위의 그림은 3장의 분석 결과를 총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되는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을 시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기독교인은 주로 권력자로 묘사된다. 그들은 경제·사회계급적, 종교적, 젠더·세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의 요소들은 상호교차하며 여러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생성한다. 계급과 종교적 권력의 교차는 기

만, 폭력, 환각, 공포, 야합 등의 방식을 통해 작동된다. 젠더/세대와 종교적 권력의 교차는 성폭력, 폭력, 가부장제를 통해 발현된다. 피권력자들은 주로 기독교인 캐릭터의 성도나 가족으로 등장하며 협력 또는 적대관계 인물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시민부터 이주민(수리남), 빈민(더글로리), 어린 여성(오징어 게임, 길복순), 성소수자(우영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교차성의 시각에서 권력에 의해 타자화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다. 기독교인의 권력에 의해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 피권력자들은 복종, 인격 말살, 착취, 가스라이팅, 사회부적응, 자기결정권 박탈 등의 피해를 입는다. 이를 종합하면 주체성의 상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3장에서는 기독교인 캐릭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 권력의 작동방식, 피권력자와의 관계,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중들의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와 중첩되어 있는 정체성과 특권 및 차별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캐릭터는 경제적·사회적 계급 권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회자 캐릭터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특권을 행사하며 이미 상류층에 속해 있거나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자신의 실의 추구를 종교적 사명으로 둔갑하여 추종자들을 현혹한다. 또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만, 환각, 폭력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다수의 콘텐츠에서 이러한 유형의 캐릭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대중들의 인식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빈민과 소외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기독교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종교이며, 사회적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특권적 집단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지도자들과 일부 유명 목회자들의 모순적 행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성도 간의 관계가 가스라이팅 등의 방식을 통해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대중들의 시선 또한 읽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권력 유지에 협조하는 존재들이며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만당하는 비이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을 투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독교인은 젠더 및 세대 권력과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대부분 가부장적 권력을 지닌 중년 남성이 권력자로 묘사되며 그들의 딸이 피권력자로 위치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독교인으로 등장한다.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기제를 지닌 채 등장하며 여성의 저항으로 인하여 서사세계에서 축출된다. 이는 젠더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이미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가부장제의 대변자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가 억압을 극복하는 주체적 존재로 묘사되는 구도에서는 기독교인이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리에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젠더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기독교를 타인의 주체성 혹은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독선적 존재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한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신의 규율을 강요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모습이 다수 발견된다.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이타적 이웃이 아닌 타 종교인을 배척하는 차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피권력자를 억압하다가 끝내 축출되는 기독교인 캐릭터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적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시대의 지배적 미디어가 기독교인을 권력자이자 억압자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반성적 성찰을 재고하게 한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면에는 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표현상 구체화의 정도와 유사한 캐릭터의 지속적 등장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호오만을 원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가장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 억압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선의 불식을 위해서는 더 낮은 곳을 향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전략적 대응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대중들에게 기독교는 대화가 불가능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문화 콘텐츠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텍스트인 동시에 그것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상호작용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도전적이며 새로운 담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연구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유정 (2015). 영화 <겨울여자>의 여대생과 70년대 한국사회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1(2), 187-217.
- 강유원 역 (2011). **헤겔 법철학 비판**. Marx, K. (1927).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서울: 이론과실천.
- 강진구 (2023).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202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2-74.
- 권순옥 역 (2021). **오인된 정체성**. Haider, A. (2018). *MISTAKEN IDENTITY*. 성남: 두 번째테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김소은 (2017). 멜로드라마의 '감정 구조' 형성 방식 연구 -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52), 5-60.
- 김지연 (2022). MZ세대의 출현과 광고의 정체성 정치: 현대자동차 영상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연구**, (118), 3-37.
- 김창남 (2021). **한국 대중문화사**. 파주: 한울 아카데미
- 박동일 (2020). "정치적 올바름" 속에 숨겨진 마귀의 계략,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10월 호, 29-33.
- 박만준 역 (2013).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Will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성은애 역 (2021). **기나긴 혁명**. Willams, R. (1961). *The Long Revolution*. 파주: 문학동네.
- 안승범 (2022). 한류 태동 과정에 대한 연구 - 내재적 동인이 중층적 발현에 대한 고찰.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7), 87-113.
- 이선진 역 (2020). **상호교차성**. Collins, P. H. & Bilge, S. (2016). *Intersectionality*.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수경 역 (2020).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Fukuyama, F. (2018). *IDENTITY*. 서울: 한국경제신문.
- 이종일 (2019).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이종일 (편저). **정치적 올바름 논쟁과 시민성**(pp. 47-52). 파주: 교육과학사
- 지인혜 (2023). 국내 OTT 산업 및 기업의 주요 현황과 시사점.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4, 22-32.
- Podalsky, L. (2003). Affecting legacies: Historical memory and contemporary structures of feeling in 'Madagascar' and 'Amores Perros' (Latin-American film). *SCREEN*, 44(3), 277-294.
- Robe, C. (2017). The Specter of Communism: A Communist Structure of Feeling within Romanian New Wave Cinema. *Film Criticism*, 41(2), <https://quod.lib.umich.edu/f/>

-
- fc/13761232.0041.203/--specter-of-communism-a-communist-structure-of-feeling-within?rgn=main;view=fulltext.
- 국민일보 2022. 4. 27일자. “[한국교회 세상속으로...] “기독교 배타적”...호감도 25% 그쳐.”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42493>. (검색일 2023.6.22)
- 노컷뉴스 2023. 5. 28일자. “[파워인터뷰] 백광훈 원장, 대중문화 속 기독교,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950695>. (검색일 2023.6.23.)
- 뉴스앤조이 2023. 1. 21일자. “세상 사람과 평등 의식 차이 ‘없는’ 개신교인...”교회 안에서만 성결한 삶 작용.”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21>. (검색일 2023.7.4)
- 뉴스파워 2021. 10. 31일자. “[소강석 목사 영혼 아포리즘] “한국교회여,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해 주세요””
<http://www.newspower.co.kr/50558>. (검색일 2023.6.23.)
- 문화선교연구원 2018. 12월자. “[임성빈의 문화칼럼] 정체성의 정치와 교회, 신앙인.”
<https://www.cricum.org/1420>. (검색일 2023.7.3.)
- 복음기도신문 2022.. 8. 17일자. “[세상 바로 보기] 정체성 정치와 성경적 세계관.”
<http://gnpnews.org/archives/120200>. (검색일 2023.7.4)
- 코람데오닷컴 2020. 9. 2일자. “‘탈이념’이 아니라 ‘문화 막시즘’입니다.”
<https://www.ks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1>. (검색일 2023.7.4)
- 크리스천투데이 2022. 9. 20일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기독교와 마약 중독 매치시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0064>. (검색일 2023.6.23.)
- 한국기독교공보 2021. 10. 11일자. “오징어게임, 기독교 향한 독설은 현실”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091279182>. (검색일 2023.6.23)
- 한국기독교공보 2023. 2. 19일자. “불교는 ‘친근’... 개신교는 ‘거리감”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689115749>. (검색일 2023.6.22)
- SBS뉴스 2023. 5. 26일자. “[스프] 논란의 ‘인어공주’, 정작 불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05880. (검색일 2023.7.4)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A Study on Intersectional Power Relations Projected on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Series

김태룡 (경희대학교)

안승범 (경희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심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기초한다.

이를 위해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감정구조' 개념에 착안하여 문화, 예술이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또한 사회 권력의 구성이 다양한 정체성 요인의 중첩 위에서 형성됨을 설명하는 '상호교차성' 개념을 주된 분석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7개의 작품에 등장한 8명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넷플릭스 콘텐츠 속 기독교인 캐릭터는 주로 사회적·경제적 계급, 젠더, 세대 등의 심급과 중첩되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과 억압을 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넷플릭스, 한국교회, 기독교인 캐릭터, 상호교차성, 기독교문화콘텐츠